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에 나타난 도시 주변부의 삶과 도시발견의 의미

김 은 자*

요 약

조선족 중견 작가 김혁의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에서는 작가가 창작 후기에서 밝힌 것처럼 도시로, 외국으로의 진출 과정에서 조선족 여성들이 겪게 되는 아픔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작가는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대두된 조선족 사회의 위기를 염두에 두고 고심하면서 박신이라는 여주인공이 근원적인 아픔을 지니고 맞닥뜨린 운명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죽게 되는 비극을 다루면서 의식적으로 자질구레한 인정세태를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의 소외계층에 주안점을 두고 민족적인 삶의 생리와 그 진로를 예술적으로 구명하고 있다고 본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한 서사공간인 국자가는 주인공에게 있어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관심과 경쟁과 긴장, 소외 등의 부정적인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시골태생의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젊은 주인공 신애가 도시로 들어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소설에는 국자가에서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과정을 통해서 도시의 삶의 특성과 그 실체를 발견하고 좌절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인의 사랑과 죽음을 넘어선 한 공동체의 운명과 정체성에 대한 고뇌를 다룬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신애가 도시에 들어와서 도시를 전전하며 겪는 삶의 여정과 도시발견 등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연변대학교 조선문학 박사과정, 하얼빈이공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사

주제어: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 산업화의 물결, 소외된 자, 여
주인공의 비극, 가치관의 변화, 국자가의 상징 의미

목
차

1. 서론
2. 산업화의 물결과 도시 주변부의 삶
3. 여주인공의 비극과 자아 찾기
4. 국자가의 상징 의미
5. 결론

1. 서론

조선족은 조선반도에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한 이래 현지인과의 차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왔다. 배를 굶던 가난한 시절에도,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글을 악착스레 지켜왔으며 전통미덕을 고이 간직하여 왔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혁개방은 조선족 문화 및 문학의 생존기반이었던 조선족 농촌공동체를 뿌리째 뒤 흔들어 놓았다. 게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른바 ‘코리안 드림’이라 불리는 조선족들의 한국진출은 또다시 중국 조선족 이주 역사상 ‘제3차 대이동’¹⁾ 또는 ‘두 번째 이민’²⁾ 이라 불리는 조선족 인구의 대이동³⁾을 초래했다.

1) 연변작가협회, 「개혁개방이래 연변작가협회가 걸어온 30년」, 『연변문학』, 2008년 12호, 11면.

2) 장춘식, 「두번째 이민과 우리 작가들의 대응」, 『도라지』, 2009년 3호, 123-129면.

3) 본고에서는 이동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어에서는 流动人口이라 하여 流動이

특히 90년대 이후 더욱 거세게 불어치는 도시화,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조선족들은 앞장서 조상이 힘겹게 일궈낸 삶의 터전인 고향을 버리고 경제가 가장 빨리 발전한 연해 지역과 대도시로 대규모로 진출하였다. 게다가 ‘출국바람’까지 불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방방곳곳으로 ‘바람꽃’처럼 흩어져 살고 있는 까닭에 조선족 집거구가 비는 ‘공혈’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농토, 농업, 농촌마을, 마을학교 등 4대지주에 의해 지탱되었던 중국 조선족 농촌공동체가 물 먹은 토담처럼 맥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⁴⁾이다.

개혁개방 이전까지 조선족 구성원의 대다수가 거주했던 농촌에서는 신분 변화의 기회가 거의 없었으나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시장경제가 시행되면서 도시로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화와 더불어 생산과 생활의 중심이 도시에 옮겨지면서 좀 더 잘살아보겠다는 욕구가 분출하고, 이에 따라 ‘잘 살아보세’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취감이나 만족감만과 함께 아픔과 고민도 동반되고 있다.⁵⁾

중국 조선족 문단의 중견 소설가 김혁은 민족적 사명감을 안고 변혁기를 거치면서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는 오늘날의 조선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의 두 번째 장편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는 『연변문학』지 2003년 9월호부터 2005년 3월호⁶⁾

란 표현을 사용하고 일부 학자들도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나 엄격히 말해 유동은 이민을 비롯한 모든 이동을 포함한 용어이기에 이동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손춘일, 『중국조선족이민사』, 중화서국, 2009, 1면 참조.

4) 김관용·김정은, 『개혁개방이후 다문화시대 중국조선족문학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 『국어교육연구』 제26집, 2010, 55면.

5) 장춘식, 앞의 논문, 124면.

6) 본고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국자가』로 약칭하고, 인용은 단행본으로 하며 『국자가』, 면수'로 밝힌다. 소설의 출처에 관련하여 단행본 『국자가』 385면에서 2003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연재되었다고 하였으나 필자가 확인한 결과 이는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까지 연재되었다. 독자들의 성원과 청탁에 의해 작품이 발표된 지 4년 후인 2008년에 『각설탕』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종합신문』에 1년간 연재되었으며 2018년 9월에 연변교육출판사에 의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김혁은 『국자가』에서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대두된 조선족 사회의 위기를 염두에 두고 시골태생의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젊은 주인공 박신애가 도시로 들어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결국 근원적인 아픔을 지닌 운명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비극을 다루고 있다. 의식적으로 자질구레한 인정세태를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의 소외계층에 주안점을 두고 민족적 삶의 생리와 그 진로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국자가』의 공간적 배경인 국자가는 주인공에게 있어 동경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관심과 경쟁 그리고 긴장과 소외 등 부정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은 국자가에서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도시의 삶의 특성과 그 실체를 발견하고 좌절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최병우는 『국자가』에서 도시화에 따른 농민들의 도시 이주는 밑바닥 직업을 전전하는 비극적 원점회귀로 끝난다는 것⁷⁾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충분히 긍정하면서 본고에서는 신애가 도시에 들어와서 여러 곳을 전전하며 겪는 삶의 여정을 분석하여 도시 공간의 발견이 갖는 의미, 즉 소설의 주요한 무대인 ‘국자가’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7) 최병우, 「김혁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2집, 2018, 404면.

2. 산업화의 물결과 도시 주변부의 삶

『국자가』는 어려서부터 친부모가 죽은 줄로만 알고 이모 밑에서 자란 주인공 신애가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야반도주하여 국자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고향친구 경자의 호출기 번호를 잘못 적은 탓에 낯선 국자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의도하지 않은 온갖 고생을 하게 된다. 경자를 찾아 나선 길목에서 신애가 마주한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90년대 도시의 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과생된 물질적 풍요를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그녀가 국자가에서 만난 ‘도시인’들은 인간관계를 물질적 관계로 환치시키고 있었다.

처음 정을 붙였던 ‘오씨네 김밥집’은 파가이주를 당하고, 정조를 바쳐 사랑했던 윤승원에게는 버림당한다. 경자의 권유로 낙태를 결심하고 찾아간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으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나, 그동안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친어머니를 만나 꿈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하루 동안의 엄마였을 뿐이다. 그녀는 친어머니로부터 다시 한 번 이 세상 밖으로 내버려진다. 신애가 그토록 원하던 돈을, 놀랄 만큼 큰 액수의 돈을 친어머니가 쥐어주나 그 돈은 신애의 지난 삶에 대한 보상도, 한때 자신이 버린 딸이 성장해서 나타난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는 사과도 아닌, 오로지 현재 자신의 행복한 삶을 파괴할까봐 무서운 두려움과 불쑥 나타난 불청객에 대한 귀찮음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렇듯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모정도 결국은 차디찬 종잇장으로 대체되고 마는 장면을 통해 물화된 인간과 궁극적인 소외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 들어와서 어리숙은 신애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던 고향친구 경자도 결국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고 만다. 친구의 배신 때문에 한국남자와 결혼해 출국하려던 꿈은 무산되고 신애는 아득한 절망과 충격에 몸부림친다. 철석같이 믿던 친구에게 당한 배

신인 만큼 그 아픔이 쉽게 가지지 못했기에 신애는 급기야 도시의 모든 인간, 나아가 자신까지 비정한 냉혈동물로 점점 전락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신애는 자신의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만다. 신애와 경아⁸⁾ 모두 여러모로 변화가 많고 혼돈스럽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감과 공감을 통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 신애는 한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너그러워 모성애로 승화시켜 경아에게 또 가정에 몰두했으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경아의 냉랭한 반응과 그로 인한 남편과의 마찰이었다. 삶의 현실과 이상적 소망은 서로 어긋나고 노력해 애써 꾸려오던 가정은 결국 파탄의 형국에 이른다. 누구보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왔지만 집에서 나와 김밥 마는 일을 다시 하면서 그녀는 “한 치의 진보도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⁹⁾ 이는 도시에 들어온 후 소외된 자로서의 기억이 각인된 깊이만큼 불안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안정적인 위치를 확립하고자 부단히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주체로서의 삶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력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주인공 신애는 도시화 물결에 떠밀려 도시에 들어온 수많은 인물의 하나로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어느 도시에서나 만날 수 있는 전형성을 보여준다.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학력도 능력도 없지만 도시에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과 젊음의 폐기만으로 도시에 진출하였다. 그러다보니 결국 부푼 희망을 안고 찾아간 곳에서 오로지 자신의 육신을 혹사시켜야만 했다. 도시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또다시 도시의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하층민으로 살아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8) 신애의 친딸이 아니라 남편이 데려온 의붓딸이다.

9) 『국자가』, 325면.

주방쪽에서 본 풍경은 응접실쪽으로 보는 변화한 거리의 풍경과 사뭇 다르다. 그쪽에는 아직도 연탄을 때는 짐들이 대어(大魚)의 몸체에 붙은 흙반어처럼 호화아파트사이에 쪼그려있었다. 옥상에 볼품없이 솟아있는 굴뚝들이 초라하니 보인다. 어찌보면 이것이 바로 과도기(過渡期) 이 시가지의 모습이었다. 그속에는 본토적인것과 외래적인것이 섞여있었고 조화가 깨어진 알고도 모를 잡다한 생활이 있었다.

(내가 설 곳은 원체 저기인데...)10)

주인공 신애가 자아를 발견하는 인용 부분에는 작가 의식이 잘 드러난다. 작가는 주변부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작중 인물 신애의 시선을 빌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과도기 도시 주변부의 삶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토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이 섞여 있고’, ‘조화가 깨진 잡다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이란 한눈에 보기에조차 초라하기만 한 것이고 또 ‘볼품없이 솟아있는 굴뚝에서 토해내는 어지러운 연기’처럼 그들의 삶 역시 절로 한숨이 나는 것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런가하면 어울리지 못하고 부조화를 이루는 도시 건물의 모습처럼, 도시인들의 삶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애가 그곳을 바라보며 ‘내가 설 곳은 원체 저기인데’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한다는 데서 도시에서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가내와 아픔이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줬던 윤승원이 잡아준 세집에 승원이가 찾아오지 않자, 신애는 낚시잡지에서 실린 낚시 하는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이 어떤 무인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신애는 도시 한복판의 아파트 안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극도의 외로움을 표상하는 공간인 ‘무인도’에서와 같은 무서운 고독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소외감은 마침내 신애로

10) 『국자가』, 166면.

하여금 자아분열에까지 이르게 한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응접실 쏘파에서 고양이와 서로 포개져 잠이 들기도 했다. 잠들수 없는 밤이면 불도 켜지 않은 주방에서 공연히 고양이의 파란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실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넌 누구냐? 뭐? 신애라고? 내가 신애데? 험데 네 남자친군 왜 안 온다냐?》¹¹⁾

아무도 없는 아파트 공간에서 느끼는 고독감은 신애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고, 타자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신애는 자기 자신조차 ‘타인’으로 느끼게 된다. 타인과의 유대가 단절되듯이 자존감마저 사라져 자신과의 접촉마저 끊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신애가 자신을 사물을 대하듯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그녀의 분신과 다름없는 고양이 ‘신애’와 대화를 나누기에까지 이른다. 이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대화하거나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정신상태가 한 개인이 견딜 수 있는 극한에 달했으며 심지어 자아가 분열되어 고양이 ‘신애’를 또 다른 자아라고 느끼기에 이른다. 『국자가』에서는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상실감을 통해 나날이 변영하고 있는 도시 문명을 비판하고, 도시화 과정에서 대다수 인간들이 겪는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신애를 비롯한 많은 농촌 사람들은 농촌의 궁핍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도시로 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이 막상 도시에 들어와 할 수밖에 없는 막노동은 농촌에서의 생활보다 더 못한 최하층의 생활만 가능할 뿐이다. 『국자가』의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여 밑바닥의 삶을 을 전전하는

11) 『국자가』, 166면.

인물들은 도시에서 살아남으려 부단히 노력하지만 도시는 결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의 삶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은 도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인의 비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즉 농촌에서 도시로 아무 준비 없이 이동한 농민들은 단순 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도시생활에 적응하려 했다. 그러나 도시도 그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그들에게 차례질 일이 별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유희 노동력으로 전락하고, 생존경쟁은 빈곤층 사이에서 적대적인 관계처럼 나타나 삶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어 그들은 잡초처럼 도시에서 짓밟히며 삶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여주인공의 비극과 자아 찾기

『국자가』에서 김혁은 이전 작품과는 달리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작가가 창작담에서 “감동하며 읽었던 명저 가운데 독자들 중에 쟁쟁한 이름으로 남은 여주인공처럼 기억에 남을 여인들의 운명을 쓰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는 박신애라는 과도기 인물의 굴곡적인 삶을 통해 “마을을 비우고 집을 비우고 사랑을 비우고 떠나간 우리의 여인들이 처처에서 보이는 오늘의 현실”¹²⁾을 정시하고 있다.

『국자가』는 도시 바람, 출국 바람의 부산물로서의 시골 여성들이 고향을 떠나고 산업예비군으로 충당되며 그러한 과정에 육체적 과

12) 김혁, 『길 떠난, 혹은 떠나려는 너인들을 위한 수채화』, 『국자가』, 382면.

별 나아가 정신적 과멸로 이어지는 도식과 현 사회를 증언하는 여인들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주인공 신애라는 인물에 집대성시켜 보여주고 있다. 신애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에 진출한 조선족의 일원,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는 바, 격변기의 사회에서 몸부림치는 조선족의 삶의 현장을 여주인공 신애라는 하나의 개체의 운명으로 녹여 보여줌으로서 그 아픔을 더욱 실감나게 하였다. 또 작가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남성중심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살아온 여성을 주안점에 두고 민족적 삶의 생리와 그 진로를 예술적으로 규명하고 소외계층의 희로애락과 그들의 지향을 대변하고 있다.

여성작가가 아님에도 김혁은 이 작품에서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삶과 운명을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국자가』에는 신애의 삶과 관련되는 남성 인물 중, 긍정적인 인물은 별반 없다. 적어도 사랑을 핑계 삼아 순진한 신애의 순정을 밟아버리고 나중에 무심하게 배반해버리는 윤승원,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는 커녕 구타하고 이혼을 강요하는 안경준이란 두 인물은 신애의 비극적인 운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지어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처럼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남자의 형상에는 작가 스스로 남성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보여주고,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작가의 창작 동기가 침투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국자가』에서 주인공 신애를 비롯한 인물들은 도시에 실패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도시에 들어와서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차츰 자아에 눈을 뜨게 되면서 또한 심한 좌절을 느끼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개인의 운명이 사회적 또는 시대적 상황과 직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상황과 소설의 지향가치 사이에 필연적인 거리와 긴장이 존재하게 된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그 생애가 운명적이고, 그 운명은 그가 생존하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국자가』의 주인공 신애는 도시

와 갈등을 빚으면서 극심한 경제적 궁핍을 겪으며 최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인물로 불안정한 직업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그녀는 형체 없이 후줄근하게 주물리고 털린 ‘빨래’와 먹기 좋은 만만한 ‘떡’으로 비유되어 물화된 욕망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의 인간실존의 비참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먹기 좋은 떡’부터 먹어치우는 도시란 굶은 사람들이 마주앉은 음식상과 같아서 염치와 양심 그리고 인간애가 부재한 현실을 보여주며, ‘빨래’란 가난한 존재에 대한 가치 비하이다. 따라서 작가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그녀의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꿈에 대한 열망은 애당초 기대하기 힘든 것이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 주인공의 삶을 규정하는 ‘빨래’란 표현은 주인공이 직면한 삶의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주인공과 주인공이 처한 사회현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모순의 관계로 특정 지을 수 있다. 모든 소설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상과 사회현실 사이의 단절적인 희생물이듯이, 작가는 주인공이 냉혹한 사회현실에 의해 파멸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회의 허위적인 가치관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신애가 도시에 들어와서 악착스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다가 결국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은 신애를 대표로 하는 오늘날 조선족이 직면한 삶을 비유적으로 그려냈다고 하겠다.

여성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집대성 되어 신애에게 들이닥친다. 친모한테서 버림받고, 친구한테는 배신당하고, 꿈꿔왔던 사랑이라 믿었던 윤승원에게 버림받고, 행복했던 안경준과의 결혼도 파탄에 이른다. 김밥집 복무원, 버스회사 차장, 신발쇼핑몰 판매원, 노래방 아가씨를 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출국 중계회사에

사기도 당한다. 현실에서 무력하고 타인들에 의해서 소외되는 상태에서 그나마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자아동일성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신애가 자아동일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은 아이러니로 보인다. 신애는 생존을 위해 생존자체의 고귀함에 썩워진 사회적 윤리와 자신이 그토록 지켜오고자 했던 전통미덕을 부정하는 윤리적 타락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아동일성을 획득하려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동일성의 획득이 불가능함을 발견하고 결국 밀입국하는 배에서 죽고 만다. 즉, 자아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아 좌절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는 도시에 정착하려는 인물이 냉혹한 현실을 견디다 못해 ‘자신을 죽이는’ 극한 상황까지 내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 김혁은 이처럼 신애라는 불행한 여인의 일대기를 서술하면서 그녀의 불행은 단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조선족 전체의 일임을 환기한다. 양인철과 크리스마스에 교회당에 갔다가 김밥집 주인의 절반만큼이라도 돈을 벌게 해달라고 빌거나 하루빨리 경자처럼 시내물이 들게 해달라는 신애의 소박한 소원은 그녀의 꿈이기도 하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가난이 싫어 국자가에 들어온 그녀의 꿈이란 결국 남들처럼 ‘잘사는 것’이었다.

넓은 트렁크밑에 깊숙이 감춰둔 돈쌌지가 점점 두둑해져갔고 따라서 권태롭고 애절하던 빛으로 그윽하던 신애, 아니 혜옥이의 눈동자에 차츰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제 신애는 시계추처럼 부지런을 떨며 돌아치기 시작했다.¹³⁾

신애는 국자가에 들어와서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돈’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을 갖게 된다. 어떠한

13) 『국자가』, 219면.

형태로든 ‘돈’을 벌겠다는 욕망은 신애의 타락한 모습은 현대인들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보여준다. 신애의 가치관이 이처럼 ‘돈’을 추구하는 데로 변화한 것은 그녀가 도시 체험을 통해 사회적 냉대를 벗어나는 길을 ‘돈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결과이다.

중국 사회가 시장경제와 산업화로의 격변을 겪으면서 조선족의 대도시 진출과 해외 진출이 많아졌다.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조선족 구성원인 대다수가 거주했던 농촌에서는 신분 변화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시장경제와 산업화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 작품에서 버스 차장이 된 신애는 역 이름을 대주는 것이 요리 이름을 외우기보다 더 품위 있고 운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시인 사모님이란 소리를 듣고서 신분상승의 만족감에 도취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분상승 혹은 가난탈출의 꿈을 이루기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빠른 신분상승 혹은 급속한 가난 탈출은 더구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김혁의 장편소설 『국자가』에는 박신애라고 하는 여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을 통해 그러한 대가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꺾어지는 비발속에 행인들은 부랴부랴 길을 다그치고있었다. (-중략-)적육면체를 포개었은듯 서로가 어슷비슷한 세멘트의 구조물들이 운집한속에 신애는 서있었다. 엄마의 치마꼬리를 잃은 미아(迷兒)처럼 망연하게 서있었다. 옷이 물걸레처럼 젖고 아래도리가 흙장아찌처럼 되어서 우두망찰 서있었다. 먼 곳의 어딘가에 시선을 붙박아두고 울먹이며 중얼이었다. 《신애야! 신애야! 너 어딴냐?》¹⁴⁾

인용문은 방황하는 신애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 신애

14) 『국자가』, 190-191면.

는 비단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어슷비슷한 세멘트의 구조물들이 운집한’것으로 표현되는 도시의 한복판에 서있는 신애는 결국 ‘엄마의 치마꼬리를 잃은 미야’가 되고 만다. 고양이 ‘신애’는 그래도 찾아주는 주인이 있지만 신애는 자신은 찾아주는 사람마저 없다. 그래서 신애가 더욱 애타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고양이를 찾고 있으며 고양이를 찾음으로써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끝내 고양이 신애는 사라지고 예전의 신애도 함께 세월의 뒤안길로 잊혀져간 것이다.

산업화의 물결의 선두에 앞장선 조선족은 적지 않았다.¹⁵⁾ 그중 대개가 신애처럼 오로지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 하나만으로, 맹목적으로 도시로 이동하게 된다.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농사를 짓는 기술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 도시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일은 얼마 되지 않았다. 『국자가』에서 작가가 쓰고 있듯이 그들은 꿈을 이룰 발판으로 서비스업이나 삼륜차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으로 사는 데에는 수모와 야유가 동반된다. 또 이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밑바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신분상승’을 꿈꾸게 된다. 다시 돌이켜보면 애초에 고향땅을 등지고 국자가에 들어온 것도 농민보다 도시의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이었고 실력을 쌓아 하루 빨리 ‘허드레업종’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신애가 도시의 밑바닥 삶을 탈출하기 위한 과정과 작품 곳곳에 삽입되어 등장하는 다양각색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는

15) 80년대 말로부터 산해관 이남을 넘어선 조선족 수는 20여만, 90년대 중기부터 한국에 진출한 조선족 수는 이제 70, 80만 명을 기록한다고 한다. 200만 남짓으로 헤아리는 중국 조선족의 인구수효로 볼 때 이는 그야말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김혁, 앞의 책, 384면 참조.

비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토록 간절한 잘살아보겠다는 욕망이 좌절된 현실의 패배를 맞본 자들의 비가이기도 하다. 특히 여기서 신애라는 인물이 겪는 파란만장한 삶은 오늘날 조선족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불행, 선택과 지향, 가치관 같은 것을 두루 대변하고 있어 역사성과 문제성을 두루 획득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국과의 교류 확대 등은 조선족의 삶의 기반을 흔들면서 생활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¹⁶⁾ 급격한 인구이동과 해외진출 등으로 자신들 삶의 동질성의 기초였던 폐쇄적인 농촌공동체의 해체과정을 겪고 있으며 또한 조선족이 처해온 ‘주변인으로서의 삶’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하는 물음에 대한 모색을 요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¹⁷⁾ 특히 조선족 지식인들과 조선족 공동체는 세기말 한국과의 접촉을 통해 ‘중국의 조선족’으로서 새로운 자기인식을 하게 된다. 소설에는 소외된 자들의 잃어버린 꿈과 정체성 때문에 곤혹해야만 하는, 소외받는 이유도 결국 민족과 국가 어느 한쪽으로도 완벽한 동질성을 구축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임을 묘사하고 있다. 신애를 조선족의 대표적인 인물로 가상할 때 그가 국자가에 들어와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오씨네 김밥집’의 마담이나, 김밥을 팔던 아주머니, 단골인 털보 박씨, 그리고 광천수를 팔던 양인철 등 사람들은 신애에게 잘 대해주던 인물들이며 공교롭게도 이들 역시 조선족이다. 이는 한편으로 그 사람들이 신애를 잘 대해 주었던 이유는 같은 민족에서 오는 동질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신애가 버스 차장이 되어 만난 ‘마상(馬相)’을 한 왕제(王姊)를 비롯한

16) 김은자, 『가족 부재에서 오는 자아의 위기 극복과 상처 치유-조선족 신세대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성장과 아픔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7집, 2016, 18면.

17) 김은자, 앞의 논문, 18면.

한족들과의 사이는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며 이는 비단 신애가 시골 출신이란 이유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이질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신애와 위장결혼을 하러 온 설경호¹⁸⁾ 역시도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우월감에 젖은 인물로 그와의 만남을 통해 신애는 같은 민족이기 전에 중국 국민이라는 의식이 앞서게 된다. 그녀는 설경호에게 일말의 사랑의 감정이나 민족적인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빠듯하고 배고픈 일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로 한국으로 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한국으로 가야한다는 이유 역시도 그녀가 국자가로 들어온 것처럼, 결국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과 신분상승을 위해서였던 것이다.

작가 김혁은 이러한 이중적 차이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면적으로 단순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중국조선족의 삶의 내면적 깊이를 소설에 담아내고 있다. 소설에서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에서 꿈의 실현과 바람직한 삶을 위해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찾아야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역사적인 현실을 오늘날의 삶과 결부시켜 깊이가 파헤쳐 볼 때 비로소 ‘조선족을 조선족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즉 올바른 조선족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를 환기시키고 있다.

4. 국자가의 상징적 의미

앞의 두 장에서 주인공 신애의 도시 국자가에서의 삶의 여정을 따라 서사 공간을 작가의식과 결부하여 분석해 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국자가』의 주요한 서사 공간인 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를 중점

18) 『국자가』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한국인이다.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의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국자가란 공간과 그 의미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사회지리학적인 국자가를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국자가란 곧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 연길시의 옛 이름이다. 국자가는 조선인의 이주로 용정이 성장하고 이에 따라 일제가 용정에 필요한 관공서를 설립하는 등 일제의 물리력이 만주 지역으로 팽창하자 이에 대응하여 청나라에서 지금의 연길에 있는 자리에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민국시기에 이르러서부터는 이 지역은 관공서 즉 국(局)자가 붙은 건물이 많이 있는 거리인 국자가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연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¹⁹⁾ 이 국자가의 탄생은 지금의 연길이란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²⁰⁾

그러나 김혁이 『국자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자가라는 명칭은 오늘날의 연길 시내 한 거리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연길시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여느 대도시가 아닌 또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도시 이름을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데에는 분명 작가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고 국자가라는 지명에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국자가는 단순한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서 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자가라는 공간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핀다.

첫째 국자가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 이주민들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낯선 공간이다. 도시로 이동한 신애는 나름의 방식으로 도시의 문화적 충격을 감내하면서 낯선 공간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했다. 뽀뽀 번호가 몇 자리수인지도 모르고 잘못 적은 신애는 도시

19) 국자가는 현재 연길 시 중심에 위치한 거리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20)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역사편 이주사1집, 연변인민출판사, 2009, 381-382면 참조.

로 이동하자마자 미아가 되어 버린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시내에는 신애가 모르는 ‘학문’이 너무나 많았다. 꼭지만 틀면 나오는 수돗물을 두고 돈을 내고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아침마다 줄을 서서 약수를 받아 마시고, 신참이 한턱내려면 광채 나는 곳에서 한상 내야 하는 등 신애가 모르는 ‘학문’이 처처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자사에서 신애는 고향을 떠나 낯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며 사회적 삶을 사적/공적 영역으로 분리하는 친숙한 개념에 안이하게 순응하는 것도 아니다. 고향을 떠난 듯한 낯선 순간이 우리 자신의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다가온 것이다.²¹⁾

네온싸인이 분만해오르는 도시의 창공에는 허(虛)를 감춘 기운이 있다. 사회 전환기의 여느 도시들이면 너나가 그러하듯이 새 것과 낡은 것, 동방적인 것과 서방적인 것이 째뽕처럼 뒤섞여 사람들이 아직은 개화가 덜된 맛 망울을 나름대로 만족시켜주고 있다.²²⁾

이 인용문은 시가지로 맨 처음 들어서던 날 친구를 찾아 신애가 천방지축 헤매었던 국자가에 위치한 노래방을 찾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과도기 국자가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대목으로 소설에서 묘사한 것처럼 ‘새 것과 낡은 것,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이 뒤섞인 채 존재한다. 이런 도시의 모호한 양가성²³⁾ 은 변증법

21) 호미바버저,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02, 41면.

22) 『국자가』, 216면.

23) 러시아의 사상가이자 문학이론가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에 의해 소설의 연구에 도입된 개념으로서 신성과 세속, 삶과 죽음, 인간과 짐승 등 외견 상으로 일치될 수 없는 양극단의 공존을 일컫는다. 호미 바버, 앞의 책, 318면 참조.

의 형상적인 가상으로 정지된 상태의 변증법적 법칙²⁴⁾ 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국자가는 서울의 한 거리를 옮겨놓은 듯한 모방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 도시는 어쩌면 서울의 어느 뒀안길을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 같다. 다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들이 곳곳에서 상업을 이루고있었다. 변강의 오지라 하지만 사람들의 옷차림들이 세련되어보이고 집만 나서면 택시를 부르고 밤이면 유흥업소들마다 만원이다. 한집 건너씩 유흥장소들이 거리쪽을 향해 아부라도 하듯이 입을 벌리고 일렬횡대로 쭉 늘어서있다.²⁵⁾

『국자가』에서는 국자가가 ‘서울의 뒀안길을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 같은’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 타락된 문화를 비판한다. 그런데 그 비판의 중심은 바로 국자가란 공간은 모방한 공간이라는데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모방하는 행위’는 자아의 제한성을 집요하게 부정하는 것이며, ‘동일시하는 행위’는 갈등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라 설명한다. 문화의 이중성이란 흉내 내고 모방하는 것, 즉 주인티를 내는 자아와 사회적 주체로서의 감각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모방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 사이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표상작용이 더 이상 문화의 권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적 심리적 ‘불확실성’의 계기에서이다.²⁶⁾ 여기서 모방은 비단 사람들의 옷차림뿐이 아닌 도시 전반에 까지 침투되는데 경제적인 부의 창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다.

24) 호미 바바, 앞의 책, 58면.

25) 『국자가』, 216면.

26) 호미 바바, 앞의 책, 272면.

신애가 하루빨리 도시인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세련되게 해달라고 빌면서도 도시인이 될 수 없음을 자인하듯이, 국자라도 서울의 어느 뒷안길을 그대로 옮겨온 축소판 같은 모방의 공간이지만 아무리 변화해도 서울이 아니다. 이렇듯 한국사회와 한국인을 접할 때에서 조선족의 대다수는 ‘조선족이라는 사실’ 그것 자체에서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서 마땅히 고안되어 왔을 ‘공동성’ 즉 민족정체성보다는 중국인이라는 국민정체성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족이 스스로 더 이상 한민족으로서의 주체가 아니며 그들과 완벽한 동질감을 갖고 살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국자가는 그 의미를 지닌다.

셋째, 국자가는 신애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자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공간이다. 복합적인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 그러한 사회는 세계 자체가 복잡하다. 혼동의 여지없이 단출하게 주어진 과거의 역할로부터의 어떤 자유의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다. 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터전은 조선족의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공간이다. 이 소설은 그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적 가치들의 교섭과 혼성해 있는 공간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호준이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고향으로마저 돌아갈 수 없는 경지는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한국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신애는 한국으로의 밀입국 과정에서 비명에 죽는다. 이를 통해 작가는 국자가로 상징되는 도시가 농촌에서 이동한 이들에게 정착할 공간을 허락하지 않고, 냉혹한 현실과 좌절만을 안겨 주는 공감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달리 신애가 국자가에 들어서기 전에 머물렀던 고향 공주촌과 국자가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소설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이라는 곳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자가』에서 고향 공주촌에 대한 서사는 소설 곳곳에 삽입되어 있는 바, 이는 농촌/도

시란 이원대립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국자가의 의미를 한층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공주촌은 국자가와 더불어 조선족의 삶의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조선족들이 국자가로 이동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주는 공간이다. 예전에는 그토록 경치 좋고 인심 좋은 살기 좋은 고향이었지만 도시화의 물결과 더불어 떠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다.

동네사람들은 출국열에 혈안이 되어 리자돈을 꾸어서라도 나갔다. 한국으로, 로씨야로, 하다못해 한국 합자기업이 많다는 관대로 자기땅을 묵혀둔채, 그 땅을 헐값으로 공것으로 중국사람들이 부쳐먹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경자네 동네사람들에게 변농이를 했다.²⁷⁾

농촌이 삶의 기반이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시를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선망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도시로 이동했다. 그 이유로 “명절 닥치면 떡 한말썸이야 해놓고 살던”²⁸⁾ 고향에서의 삶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되고, 물맛 좋은 동네였건만 “사람들이 가니 물도 뒤따라 가”²⁹⁾버렸다. 이러한 황폐해진 공주촌의 모습이 고향마을 반경 10리도 벗어나 보지 못했던 순수한 시골처녀 신애조차 태어나 살던 고향을 떠나 국자가에 이동하게 한다.

국자가의 연장선에 놓이는 한국이란 공간 역시 동경의 대상으로, 그곳에서의 조선족들의 삶은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간접적으로 그려진다. 한국 남자에게 시집간 정숙이 맡고는 장백산 구경을 한 또래가 없고, 한국에 노무를 간 치보주임네 집에서 맨 처음 미국 달러 구경을 하였으며, 한국에서 돈을 벌고 돌아와 고향에 다

27) 『국자가』, 214면.

28) 『국자가』, 214면.

29) 『국자가』, 161면.

리를 놓았다는 등 서술은 한국 역시 미지의 세계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국자가에서 삶이 실패로 끝난 신애는 막연한 동경으로 이자돈을 빌려 한국으로의 노무송출을 시도했다가 업체가 부도나서 실패하고, 신애와 위장결혼을 하기 위해 국자가에 온 설경호를 통해 한국에서의 삶도 국자가에서의 삶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한국의 노무 현장에서 팔이 잘려나가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들을 통해 한국도 결국 국자와 마찬가지로 낮설고,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생존을 위하여 심신을 바쳐야 하는 공간임을 짐작하게 해 주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김혁의 장편소설 『국자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것에 이어 1992년 중한 수교가 되면서 조선족들의 삶에는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고 산업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조선족 사회 역시 급변하였다. 1990년대 이후 거 세계 불어닥친 도시화,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조선족의 한차례 대이동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내건 ‘잘 살아 보겠다’는 목표 실현은 성취감과 함께 고통과 고민을 동반하였다. 이 시기에 활동한 여타 조선족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김혁은 이러한 사회 현실을 염두에 두고 조선족이라는 민족 색채가 짙은 삶의 모습을 소설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국자가』에서는 화려한 도시생활의 이면에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가난을 극복하기에 분망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 부류 사람들의 처지를 가감 없이 묘사하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

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신애를 비롯한 인물들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도시에 들어오나 그들의 꿈 이면에는 물질적 풍요를 도모하는 욕망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물질적인 추구를 위한 ‘노력’과 ‘경쟁’을 통하여 나날이 변화하는 시대의 일부 비뚤어진 가치 관념과 사회 질서의 변화 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물질만능의 사고와 우리 사회의 세속화되고 물질 중심으로 변한 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었다. 특히 여기서 주인공 신애의 파란만장한 삶은 오늘날 조선족이 겪는 고난과 불행, 선택과 지향, 가치관 같은 것들을 두루 대변하여 역사성과 문제성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는 점도 『국자가』가 가지는 소설적 의의라 하겠다.

또한, 소설에서는 개인의 운명이 사회적 또는 시대적 상황과 직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상황과 소설의 지향 가치 사이에는 필연적인 거리와 긴장이 존재하게 된다. 『국자가』에서 주인공 신애는 도시와의 갈등을 빚는 인물로 극심한 경제적 궁핍을 겪으며 최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인물이다. 모든 소설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상과 사회현실 사이에 끼어 있는 희생물이듯이, 작가는 주인공이 냉혹한 사회현실에서 의해 파멸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타락한 도시의 허위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도시에 들어와서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다가 결국 죽음으로 이르는 신애의 삶은 오늘날 조선족이 당면한 현실을 표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애가 국자가로 이동하기 전에 살았던 공주촌,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도한 국자가, 그리고 국자가의 연장선이라고 할 한국이라는 공간은 결국 시대와 함께 하는 조선족들의 삶의 공간이다. 이들 공간의 소설적 의미는 국자가의 상징적 의미란 모방과 혼종의 공간으로서 조선족 삶의 현장의 축소판이라는 데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 김혁이 연길이란 이름을 두고 굳이 옛 이름인 국자가를 사용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국자가라는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이 작품이 개혁개방과 한중수교 이후라는 단순한 한 시대의 삶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자가라는 지명은 조선족 역사의 출발점인 용정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조선족의 이동이 현재 이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연결되는 문제임을 암시한다. 이는 김혁이 조선족의 삶에 대한 역사적 성찰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족 삶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나아가 미래에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조선족의 운명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혁,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 『연변문학』 2003년 9호~2005년 3호.
김혁,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 연변교육출판사, 2018.

2. 논문

- 김관웅·김정은, 「개혁개방이후 다문화시대 중국조선족문학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 『국어교육연구』 제26집, 국어교육학회, 2010, 25-59면.
김은자, 「가족 부재에서 오는 자아의 위기 극복과 상처 치유-조선족 신세대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성장과 아픔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7집, 2016, 1-16면.
김은자, 「길 위에서의 스캐치」, 『연변문학』 2012년 7호, 169-181면.
연변작가협회, 「개혁개방이래 연변작가협회가 걸어온 30년」, 『연변문학』 2008년 12호, 5-17면.
장춘식, 「‘두번째 이민’과 우리 작가들의 대응」, 『도라지』 2009년 3호, 122-129면.
최병우, 「김혁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72, 2018.12, 383-418면.
최삼룡, 「심금을 울린 한편의 생명비가- 김혁의 장편소설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를 논함」, 『장백산』 2013년 2월호, 43-52면.

3. 저서

- 손춘일, 『중국조선족이민사』, 중화서국, 2009.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of the Periphery of City
and the Meaning of Urban Discovery in JinGe's
Women in Juzi Street

Jin, Yinzi

As is mentioned by himself in the postscript of the novel *women in Juzi Street*, in the novel the backbone of Korean-Chinese writer Jin Ge describes the pain of Korean-Chinese women in the "boom of going into town" and "boom of going abroad". Besides always being concerned about the crisis of the Korean-Chinese society, the writer also describes the tragedy that the heroine Park Shin-ae is stuck in a doomed pain and dies without finding a solution. Rather than just describes the trivial affairs, the writer focuses on women and other underprivileged members of society, which clarifies the nature and future of the ethnicity.

To the heroine, Juzi street, the main narrative space of the novel, is both an object of longing and a negative object of indifference, competition and alienation. Born in a poor family in a rural area, the young and uneducated heroine, Shin-ae migrates to the city and discovers a new world after going through all kinds of hardships. Through the narration of the personal life experience in the street, the novel describes the process of discov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ity life and its essence. Based on a specific analysis of the community's

destiny and identity that go beyond love and death,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Shin-ae's journey into the city and the discovery of city.

Key words: *Women in Juzi Street*, Tidal Waves of Industrialization, The Change of Values, The tragedy of the heroine, Ignored Group, The Symbol of Juzi Street

투 고 일 : 2019년 1월 21일 심 사 일 : 2019년 2월 25일-3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3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9년 3월 27일